

피랍자 19명 전원석방 합의

“한국군 연내 철군·선교 중단” 조건 조만간 신병인도...청와대 공식발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 측과 한국 측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을 피랍 41일째인 28일 석방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청와대 전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40분부터 7시20분까지 탈레반측과 대면 접촉을 갖고 19명의 피랍자 전원 석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국군을 연내 철군하고 선교활동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피랍자의 전원 석방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탈레반과의 대면 접촉에서 피랍자 전원석방을 합의한 것에 대해 피랍자 가족,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대변인은 “피랍인질 가운데 12명과는 전화접촉을 통해 신병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인질들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중이다. 인질들은 석방된 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빠른 시일안에 귀국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석방 합의가 피랍자 측과 석방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인질 석방까지는 시

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측과 인질 석방협상에 참가한 탈레반 대표단의 몰라 나스룰라도 이날 대면협상 뒤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19명 인질 전원을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번에 이들을 모두 석방하기엔 (인질들이 분산돼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4명씩 순차적으로 석방할 것”이라며 “하루 안에 모두 석방은 못할 것이며 며칠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동 위성방송 알 자지라도 이날 “탈레반이 한국군의 연말 철수를 조건으로 한국 대표단과 인질 19명을 모두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알 자지라는 “양측의 대면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인질 19명이 모두 곧(soon)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 측과 탈레반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주도(州都) 가즈니시 적신월사 건물에서 12일만에 대면 협상을 재개했다.



28일 낮 탈레반측 협상대표인 카리 바시르(오른쪽)와 말리위 나스룰라(왼쪽)를 태운 차량이 한국측 협상대표단과 대면협상이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시의 적신월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다는 “한국측과 탈레반측의 대면협상이 점심 뒤 시작됐다”며 “한국측, 탈레반 대표와 부족 원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대면협상엔 한국측과 탈레반측 대표 각각 2

명, 국제적십자사 관계자 1명, 부족원로 1명, 인도네시아 고위급 관리 2명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 4명을 제외한 참관인 4명은 한국측과 탈레반의 동의 하에 협상에 참석했으며 제3국인 인도네시아 관리가 참석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

들이 한국인 23명은 지난달 19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가즈니주에서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다. 이 중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가 지난달 25일과 31일 각각 살해당했고, 이날 13일 여성 인질인 김지나·김경자씨 등 두 명이 석방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양항 컨부두 5선석 내년 착공

동양고속건설산업 등 9개사 민자사업자 참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와 정부 5선석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컨테이너부두 3-3단계 민자사업협약(안)’에 서명했다.

이번 민자사업협약에는 (주)동양고속건설산업과 금광기업, 벽산건설,

SK 등 9개사가 민간투자 사업자로 참여했다. 해수부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이래 4년 만에 협약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해수부는 모두 5천2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0월 (주)동양고속

건설사업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협상을 해왔으며, 앞으로 기획예산처 협의와 민간투자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9km의 부지에 5만t급 컨테이너부두 5선석을 건설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국비 950억 원과 민간투자 4천271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3년까지 일차로 2선석 그리고 2015년까지 3선석이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완공된 컨테이너 부두는 40년간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며, 그 이후엔 국가에 귀속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정아 추천인은 이종상교수

“경력 풍부해 추천했다”

가짜 예일대 박사 신정아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추천한 사람은 이종상(69·한국화가) 서울대 명예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명예교수가 신씨를 잘 모르고 비엔날레 감독 후보로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자신이 기금을 출연해 제정한 ‘월간미술대상’의 수상자(2003년)인 신씨를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이 명예교수는 본보가 지난달 13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소위원회(이하 선정소위) 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신씨추천인사를 확인하는 취재과정에서 추천후보를 공개한 다른 위원들과 달리 “(추천인사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신씨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추측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28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이 광주비엔날레재단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선정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명예교

수가 신정아씨를 공동예술감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명예교수는 자필 추천서에서 ‘풍부한 전시경력’과 ‘월간 미술대상 수상’, ‘미국 명문대 박사학위 소지자’를 추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명예교수는 학력란에 ‘예일대학원’(?)이라고 물음표를 적어, 예일대 박사 학위에 의심을 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신씨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예교수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신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란에 물음표를 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씨를 비엔날레 감독으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천 마지막 날까지 추천된 사람이 많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신씨가 떠올랐다”며 신씨의 추천과정에 외부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역이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과 관련,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키로 한 가운데 신씨의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선임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유망기업 상환 57만 원사와상환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운암산 코아루렉시안의 푸른 초대

6월 30일 OPEN

573-8080